1인 시위 관련 안내

최근 우리 대학 프레스센터 퇴직 조교가 대학 진입로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내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프레스센터 조교의 지위

현재 1인 시위자는 한성대 신문사 '간사'의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대학 '한성프레스센터 규정'을 살펴보면, 규정 어디에도 한성대 신문사에 간사라는 직책이나 직위가 없습니다. 규정에는 한성프레스센터 조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성프레스센터 규정 제4조 (조직) "본 한성프레스센터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행정연구원, 조교 및 학생기자로 구성된다."

2. 대학의 근무전환 제안과 퇴직원 제출

1인 시위자는 본인이 실직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2021년 3월 31일자로 만료가 도래하여, 우리 대학은 행정부서 근무 조교의 경우 계약만료 이후 TA조교로 전환한다는 '행정부서 조교 운영 방침'에 따라 내린 결정이고, 이러한 사실을 시위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퇴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교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부서가 아닌 학과(부) 조교'로 근무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3. 행정부서 조교를 TA조교로의 전환

대학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서 조교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프레스센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부서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시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성대 신문사 조교를 TA조교로 교체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 대학에서 2019년에 이미 조교 없이 학생기자 중심으로 학보사가 운영되었고, 그 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한성대 신문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대학에서는 프레스센터 한성대 신문사가 학생기자 중심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TA조교의 신속한 배치, 한성대 신문사 학생 기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기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한성대 신문사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프레스센터 한성대 신문사가 우리 대학의 주요 언론기관으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방역 관리 및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내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9.(금)

총 무 처 장